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최 결과

-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총 1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
- 핀테크에 대한 접근성 제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창출, 글로벌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성과와 수요를 반영하여 핀테크 지원 지속

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성황리에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Korea Fintech Week 2023)가 총 11,000명 이상이 세미나·행사·전시관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 오프라인 방문객 수: ('22) 7,500여명 → ('23) 11,000여명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
설문조사 결과(관람객 1,001명 대상): 세미나부대행사 만족도 88.01% 차기박람회 재방문의향 91.02%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되어, 총 107개 기업·기관이 전시관에 참여하고, 12개의 핀테크 전문분야별 세미나가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막행사 환영사 이후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의 변화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통해 사업모델과 기술홍보에 나선 국내·외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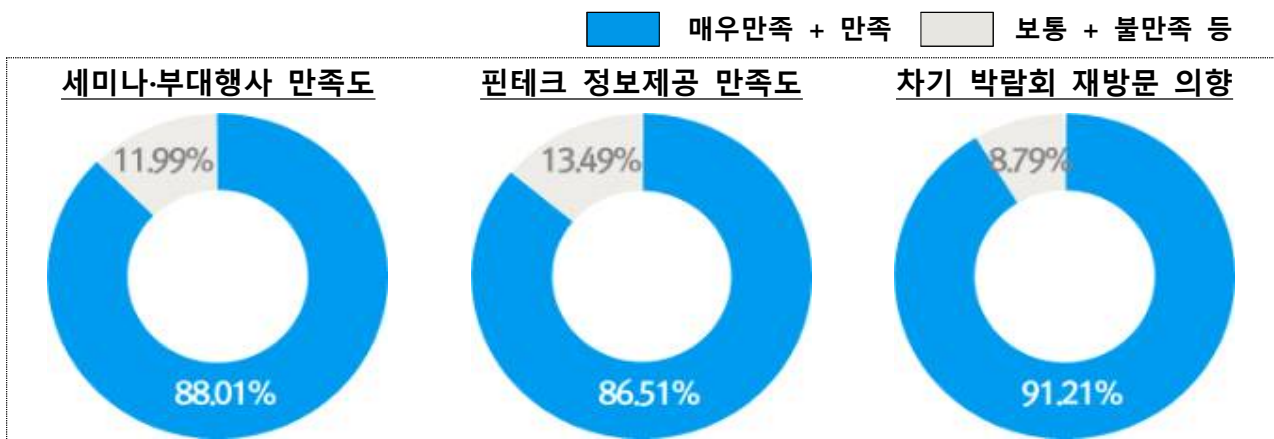
* 안면인식 및 NFC 결제 기술,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보험약관 자동분석 기술, 분할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성장·지원 솔루션, 인공지능(AI) 금융 음성기술 등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등 총 82개 전시부스('22년 61개)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글로벌관을 비롯한 해외 기관·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UAE 등 총 14개국에서 15개 부스('22년 2개 부스)에 참여하여 각국 핀테크 산업에 대한 소개와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글로벌관 참여기관:** 주한미국·호주·이스라엘대사관, 홍콩투자청,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일랜드기업진흥청, 싱가포르·일본·대만·필리핀·우즈베키스탄 핀테크협회, 바레인경제개발위원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美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경제개발청 등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별 세미나(12개)에 참여하여 각국의 핀테크 트렌드 및 발전방향과 핀테크 생태계 확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세미나 세부내용 붙임참고). 또한, 투자사 역제안(Reverse) IR과 1:1 카운슬링 등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VC(Venture Capital) 연계를 통해 총 80여건 이상의 투자상담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핀테크 커넥팅 데이(Connecting Day) 행사에도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110여명이 참여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참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1,001명 대상)



2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회 창출

작년 행사에 이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도 유망하고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개막행사에서 진행된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과 한국성장금융 간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향후 4년간('24~'27년) 유망한 핀테크에 집중 투자될 「핀테크 혁신펀드」의 2차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협업수요 발굴 및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핀테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식 기관참석자**(총 10명):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이사,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이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허성무 대표이사

금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핀테크 혁신펀드」 Reverse IR의 경우, 총 1,290억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기업에게 투자방향을 소개하는 역제안방식(Reverse IR)으로 진행되어 핀테크 기업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 KB인베스트먼트, 플렉스벤처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디티엔인베스트먼트,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핀테크 전문 투자사(AC, VC 등)와 핀테크 기업 간 1:1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1:1 카운슬링(Counseling) 프로그램에서도 총 84건의 핀테크 기업-전문투자자 간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3,564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17개 핀테크 전문 투자사*들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투자 상담과 코칭,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였다.

* 디티엔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KB인베스트먼트, 케이액셀러레이터,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플렉스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등

한편, 핀테크 기업이 유관기관 및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IR Pitching Day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6개사가 IR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종합 투자자산 관리 솔루션 ‘도미노’의 운영사인 「패스트포워드」가 우승하여 투자자들의 우선 투자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 IR Pitching Day 수상기업 >

	회사명	주요 제품 · 서비스	비고
수상 기업	패스트포워드	모바일 종합 투자자산 관리 앱 ‘도미노’ 운영	1st Prize
	인포플러스	베트남 B2B 핀테크 API	Innovative Enterprise
	아이쿠카	분산신원인증 기반 자녀 금융 생활관리 플랫폼 ‘아이쿠카’ 운영	
	스팬딧	SaaS 기반 법인비용 및 정산 관리 자동화 서비스	Iconic Enterprise
	루센트블록	분산원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유동화 거래 플랫폼 ‘소유’ 운영	
	소셜트러스트	개발도상국 대상 연대보증기반 소액 대출 플랫폼 ‘Trusty’ 운영	

3 기타 주요 성과

올해 새롭게 선보인 핀테크 서포트존과 네트워킹 라운지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를 비롯하여, ❶핀테크 현직자 멘토링(110건)* ❷일자리·취업 상담(149건), ❸핀테크 전문가 컨설팅 및 수출기업 현장상담(22건) 등 다양한 현장상담을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 및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멘토기업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후스파트너스,페이플, 핀다, 이나인페인, 에임스

또한,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본선진출 6개 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거비용 통합관리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리집사(팀장: 이지아)」가 대상(금융위원장상)에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 >

상명	팀명	팀장명	아이디어 내용	비고(상)
대상	우리집사	이지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거비용 통합관리 서비스, 우리집사	금융위원장상
우수상	AI Oracle	강보선	AI Oracle: 나만의 해외 주식 플랫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상
	블록젠	박재우	소액외환 환전시스템, 짤랑!	금융결제원장상
	-	이상용	햄틱Lock-369	한국신용정보원장상
	그레이집	임동균	아파트 대출/투자의 새로운 방법	코스콤상
	램플리	정우환	AI 기반 공시 분석 서비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상
장려상	뱅크오브홀스	김세진	말 관련 조각 거래 플랫폼-뱅크오브홀스	-
	한국자산매입 주식회사	김종구	부동산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헛지했지	-
	디레몬	명기준	AI 기반 보험 위험평가 및 탈모보험 상품화	-
	쏘하이	박하리	모이락	-
	-	송무근	소상공인을 위한 Digital BNPL 서비스	-
	커런시 유나이티드	윤민성	주식거래처럼 환전거래	-
	온앤오프	이연우	개인/기업의 올바른 소비를 위한 카드 사용범위, Customizing 'ON&OFF'	-
	Zenefit	이지훈	Zenefit: 신청 가능 혜택 추천 및 예상 수혜금액 계산 솔루션	-
	Pay Map	이환진	Pay Map	-
	오아시스	정인식	입금확인 미니 표시기	-

이외에도, 청소년 단체투어* 는 금융뮤지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코리아 핀테크 투어** 프로그램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핀테크 생태계 관련 대표기관(프론트윈,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의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과 금융인프라를 홍보하고,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여수정보과학고, 대경생활과학고, 제주여자상업고, 삼일고, 영종국제물류고 등 약 260여명

**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 싱가포르·일본·필리핀·대만 핀테크협회, 남아공·베트남·라오스 핀테크 관계자 등(총 20여명)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내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행사와 향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정수종	(02-2100-253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	책임자	본부장	황인덕	(02-6375-1510)
		담당자	부 장	홍석훈	(02-6375-1508)
			과 장	이정은	(02-6375-1519)



※ 프로그램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

1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주요 국제기구 합동 핀테크 세션

□ (제1세션)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Fintech and the Future of Finance)

- **핀테크와 포용금융**(국제금융공사(IFC) Matthew Saal 디지털금융국장)
 -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IFC가 관할하는 전 세계의 개인 및 SME의 금융포용 환경, 핀테크 산업의 발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혁신과 포용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
- **유럽의 핀테크 현황**(유럽부흥개발은행(EBRD) Alex Pivovarsky 자본시장개발국장)
 - 2022년 EBRD 디지털 전환 활동: ①디지털과 관련된 50개의 정책 활동 실시, ②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36건의 투자 계약 체결, ③SME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851건의 현지 자문 서비스 제공
 - EU 디지털 금융 규제 발전 : 2020년 9월, EU는 유럽 경제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선두 주자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채택. 이 패키지는 디지털 금융 전략,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운영 탄력성을 포함하며, 2023년 4월에는 암호화폐에 관한 일관된 규제를 도입
- **한국의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한국신용정보원 성시호 마이데이터지원센터장)
 - 현재 한국의 마이데이터의 구조와 특징, 규제환경 및 미래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확대 방안, 로드맵 제시
- **지급결제의 최신 경향**(세계은행(World Bank) Maria Teresa 선임금융전문관)
 -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결제 시스템의 혁신: ①빠른 결제 시스템(FPS), ②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③기타혁신서비스(모바일머니, QR코드 등), ④소액 결제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향상
 - 암호자산의 시장 규제 지침 제공 및 시행, 국제지침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규제 권장,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의 협력 강화

□ (제2세션) 지속가능 개발과 핀테크(Linking Sustainable Deveopment and Fintech: Navigating GreenTech Opportunities)

- 기후 분야 핀테크: 기회 탐색 및 정책 영향(UNIDO 강성호 기후금융 수석전문관)
 - 국내 핀테크 기업들에게 해외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 제시
 -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신흥시장과의 소통 채널 마련 당부
- 유럽지역의 녹색금융 핀테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Jim Turnbull 경제개발전문가)
 - (2021년 기준) 녹색금융 핀테크를 위한 연간자금 지원 규모는 약 14억 유로
 - (2022년 기준) 기후 핀테크 기업 수는 유럽 229개, 북미 120개, 아시아태평양 43개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금융 프로젝트 : 2025년까지 녹색금융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자 함(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가치사슬 변화 유도)
- **KhepriBioconversion in South Africa**(Khepri Bioscience 社 (남아공) Bandile Dlabantu CEO)
 - 곤충과 식물물을 활용한 신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Khepri Bioscience의 사업모델은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식물 쓰레기를 곤충의 사료로 사용하고 해당 유충에서 다양한 물질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직접적인 생물전환 기술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의 투자를 희망함
- **Greenmovement Energy의 사업모델 소개 및 한국의 투자설명** (Greenmovement Energy 社 (남아공) MZethu Kunene CEO)
 - 우디스(Woodies) 라는 나무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의 그린핀테크 스타트업 P2P투자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들과 좋은 협력 모델 모색 희망
- **인도의 그린테크 및 Green cooling and Energy 한국의 투자설명**(Green cooling and Energy 社 (인도) Aninda Sircar CEO)
 -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비롯한 화석연료 중심으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투자 희망

[금융감독원]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성화 및 금융회사 협업 지원방안

- 핀테크·금융회사의 공동 기술실증(Joint PoC) 사례(투이컨설팅 이승봉 이사)
 - 최근 대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모델 발굴 및 공동 사업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금융상품 및 데이터 중개 중심의 협업에서 기업가치평가 중심의 기술 협업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 핀테크 기업의 미래 사업모델은 소비자-마켓-공급자를 포괄하는 생태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도 중요
- 국내 금융권의 핀테크 협업·투자현황(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김부곤 국장)
 - 국내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투자를 진행 중이나 빅테크 3사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향후 금융회사가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은 단순 협업이나 업무 위수탁 단계가 아닌 공동기술 실증(Joint Poc) 등을 통해 협업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진출의 경우 진출 국가 다변화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성화 및 금융회사 협업 지원방안
(토론/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
 -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KB 계열사 인프라 및 예산을 활용하여 PoC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 협업 확대를 추진이며,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현지 KB 보육 프로그램 참여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협업 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적 균형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분야에 있어 공동 기술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실증은 타겟 고객 명확화, 중점 협력기술 적용, 기술 to 서비스 전환체계에 집중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투이컨설팅 이승봉 이사)

-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도 필요하지만 핀테크 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 향후,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 등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퀀트 한덕희 대표)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은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핀테크 윈터'를 겪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당국이 아니라 협업당국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김부곤 국장)

[신용정보원] 데이터 경제 시대 핀테크 산업의 빅퀘스천

- AI가 바꾸는 투자의 패러다임(크라프트 테크놀로지스 김형식 대표)
 - 크라프트 테크놀로지스는 머신러닝, 로보 어드바이저, 자연어 처리 기술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회사로, 이러한 기술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평가, 시장 예측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함
- 핀테크 AI 추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중앙대학교 조윤식 교수)
 -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
 - 핀테크 산업의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 활용 사례 검토
- 합성데이터를 통한 금융 AI 활성화 방안(한국신용정보원 허용준 팀장)
 - 금융 합성데이터 생성을 위한 AI알고리즘 소개 및 이를 통해 생성한 금융 합성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분석
 - 금융 합성데이터의 책임있는 생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정보보호, 윤리, 거버넌스, 제도)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 소개(한국신용정보원 조근상 팀장)
 -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혁신 서비스로 지정한(23.6.21.) 금융분야 AI 개발 및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인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 목적, 기능, 기대효과 등을 소개

[금융결제원] 디지털 지급수단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 카카오페이의 Borderless(카카오페이 마케팅부문 이영재 부문장)

- 카카오페이는 해외 각국의 페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①한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outbound), ②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inbound),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던 결제 서비스 경험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의 구축은 결제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하고, 사용자의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해외여행 시에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글로벌 지급결제 트렌드(PwC 싱가포르 결제전략파트 Shirish Jain 이사)

- 디지털 지급결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6가지 트렌드(포용성과 신뢰, 디지털화폐, 디지털지갑, 국가 간 결제, 결제 경쟁, 금융 범죄)로 요약할 수 있음. 결제 방법은 3가지의 조건(신뢰성, 안정성, 필요한 순간에 사용)을 충족해야 함
- 핀테크를 비롯한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확대하고,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지급결제시스템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 협력(금융결제원 오은숙 해외협력센터장)

-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시스템 구축·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위해 ①해외 시스템 구축, ②지식공유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③국가 간 서비스 제공, ④해외 기관과의 교류·홍보 활동을 수행해왔음
- 국가 간 규제 및 기술표준 차이로 해외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한국형 지급결제 인프라(ex. 오픈뱅킹 등) 수출 노력은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내 핀테크가 보다 친화적인 환경에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할 것

[삼성KPMG] 한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Go-To-Market 전략

- 글로벌 핀테크 맵 소개 및 글로벌 진출 implication(삼성KPMG 김세호 파트너)
 -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변화, 산업현황 및 To-Be 방향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언(글로벌 핀테크 맵 소개)
- 라인 파이낸셜 해외 진출 사례 소개(라인파이낸셜플러스 김영은 부사장)
 - 동남아 중심의 해외 진출 비즈니스 사례 및 SUCCESS FACTOR, 성과, LESSONS
- Market penetration 측면에서의 핀테크 지원 서비스 사례(하나벤처스 황선호 수석)
 - 다양한 VC에서 지원 및 하나금융의 해외 진출 지원사례 소개
 -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핀테크 사들이 어떤 포인트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 관점의 Tips 소개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GTM전략(토론/ 좌장: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서비스 영역별 리딩 기업들의 투자와 IPO가 활발했으나, 산업 성숙도가 높아지며 성장성 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이 조정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 수 증가, 사업모델 다변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수익성 제고, 해외 진출을 통한 핀테크 산업 전반의 스케일 업 (Scale Up)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
 - 현지 비즈니스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 먼저 진출한 라인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바라며, 라인이 해외 진출 하고자 하는 여러 핀테크의 좋은 제휴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라인파이낸셜플러스 김영은 부사장)
 -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 중요하며, AI분야는 여전히 투자자가 관심이 많은 분야(하나벤처스 황선호 수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산업동향 및 기술 트렌드

-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STO,CBDC 등) 산업동향**(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
 -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물론, 한우, 미술품, 걸그룹 콘텐츠, 전통적인 투자회사만 투자할 수 있었던 비행기까지 조각투자 및 토큰화가 가능한 시대가 왔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핀테크 업체가 STO 사업을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점차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진행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기술트렌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 박사)
 -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다양한 사업모델로 나오고 있으며 BNPL(후불결제), 대안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가상자산의 이슈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계속 발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관점에서의 균형있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내·외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활성화 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 정준기 선임연구원)
 -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 중국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검증 사업을 수행 중이며 기능, 성능, 보안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음

[한국성장금융]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 투자자가 기업에게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역 제안방식(**Reverse IR**)으로 **총 1,290억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투자전략을 발표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 KB인베스트먼트, 플렉스벤처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코스콤] AI 테스트베드 및 챗GPT가 촉발한 AI시대 대응전략

- AI를 활용한 D-테스트베드 사업(코스콤 황수용 팀장)
 - D-테스트베드란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검증과 사업의 혁신성·사업성 검증 및 규제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사업화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AI시대 금융권 대응전략 및 하이퍼클로바X 소개(네이버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의 초대규모 AI로, 자체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하여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즉각 제공. 네이버 서비스부터 기업형 서비스까지 다양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금융보안원] 핀테크 4.0 시대의 금융보안 전략

- AI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금융보안원 이명건 책임)
 - AI 위협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국내외 AI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AI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으로 AI 신뢰성 및 보안 추진 현황, AI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봄
- 안전한 디지털 금융을 위한 SW 공급망보안 이해하기(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
 - SW공급망보안 생태계와 SBOM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식별 및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디지털 금융보안 관리방안 제시
- 디지털 자산 전자지갑의 보안 강화 방안(금융보안원 황송이 책임)
 - 전자지갑 침해사례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 요인과 공격 방법을 식별하여 암호학적 기법, 전자지갑 운영구조분석 등 기술적·구조적 보안 강화 방향을 제시

[BC카드] 금융·핀테크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 금융·핀테크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비씨카드 신금융연구소 이상현 소장)
 - 글로벌 지불결제 시장 및 핀테크 지불결제 트렌드(BNPL)에 대한 리뷰
 -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필요성 및 대상국가 선정에 위한 전략 고찰
- 금융·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전략(비씨카드 글로벌사업본부 임남훈 본부장)
 - 금융결제과 핀테크 현황을 통한 중앙·동남아시아 공략 전략
 - 현지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을 통한 공동 진출 및 현지화 전략
- 금융·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사례 및 향후 과제(스마트로 이동훈 DX사업단장)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핀테크 진출 사례 및 이슈 공유
 - 금융기관과 수직적 결합을 통한 향후 중앙아시아 진출 사례 및 향후 과제 공유

[금융연구원]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핀테크 생태계 개선방안(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 국내 핀테크 환경에서는 ①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감소, ②초기에만 집중되는 투자 유치 비중, ③보안 및 인증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물리적 망분리, ④경쟁제한적 환경, ⑤P2P 대출업과 마이데이터업 등 일부 업종의 고사 위기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핀테크의 전문성 강화로 혁신성 향상, ②규제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샌드박스 활용도 향상, ③물리적 망분리 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신규수요 창출, ④경쟁제한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감독 수단의 확보, ⑤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투자 및 M&A 활성화로 출구전략 보완, ⑥핀테크의 해외진출 지원강화를 제시함

○ Japan's Policy Support for Fostering Fintech Innovation and its Outcomes(일본금융청 우시다 요스케 금융혁신실장)

- 일본의 금융서비스 육성은 ①핀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 지원, ②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③신기술에 대한 R&D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기에 매년 도쿄에서는 국제 핀테크 컨퍼런스("FIN/SUM")를 개최하고, 일본 금융청은 'Fintech Support Desk', 'Proof of Concept Hub'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함

○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환경 조성(토론/좌장: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두)

- SAAS 및 BAAS의 활성화, 현재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가능해진 예금, 보험, 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중개의 정식제도화가 필요함(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부사장)
- 빅테크의 플랫폼 및 서비스 장악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수단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의 위축이 우려됨. 중소형 핀테크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함(비바퍼블리카 안규찬 실장)
- 업무위탁 범위에 대해 본업도 업무위탁을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차원에서는 중요한 논의라 생각하며, 해외의 경우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많이 인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인수합병도 가능해야 함(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 해외 업체의 일본 진입을 기대하며, 한국의 경우 타국에 비해 일본의 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일본금융청 우시다 요스케 금융혁신실장)

[보험연구원] 해외 인슈어테크 현황과 한국 인슈어테크 전망

-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 현황(보험연구원 이정우 연구위원)
 - 생명·건강보험은 전통적인 보험 가치사슬의 개념을 넘어 가치사슬이 다각화되고 있고, 손해보험은 보험모집이나 위험평가와 관련한 인슈어테크에 투자가 집중되었음
- 아시아 인슈어테크 사업모형 사례(아시아인슈어테크협회 George Kesselman 대표)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슈어테크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여 임베디드 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옴니채널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이머징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지역 소비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활용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필요함
- 한국 인슈어테크 전망과 과제(토론/좌장: 포항공과대학교 정광민 교수)
 - 경험 축적과 학습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협업-모니터링-고도화'에 대한 거버넌스 환경 조성이 필요함(AIMS 임종윤 대표)
 - 최근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며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인슈어테크와 상생하는 모델을 가지고 19년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정기적인 세션을 통해 인슈어테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교보생명 박성주 팀장)
 - 보험업이 은행업과 차이를 보인다면 은행의 경우 기술의 성장이 업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지만, 보험업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음(KPMG 황태영 파트너)

2 기타 프로그램 주요내용

[핀테크지원센터] Asia Fintech Round Tabl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핀테크 현황

- 규제 샌드박스, E-KYC, 보안토큰, 오픈 API 등 현재 일본 정부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정책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소개 진행 (일본핀테크산업협회 Takeshi Kito 부회장)
- 레그테크, 지급결제, 가상화폐/NFT, 그린 핀테크 등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했고,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회계 등이 핀테크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생각함(싱가포르핀테크협회 Reuben Lim 최고사업책임자)
- 규제샌드박스,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사기 방지 조치, 친환경 금융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대만이 책임 있는 핀테크 혁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대만은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 및 투자자와의 협력에 열중하고 있음(대만핀테크스페이스 Ting Ting Wu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
- 아세안의 모바일 중심적 특성, 핀테크 성장에서 이커머스의 역할, 진보적인 규제, 투자 기회, 필리핀 핀테크 생태계 내 협력 노력에 대해 강조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핀테크 산업과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할 국제 파트너들을 초청 요청함(디지털필리피나 Amor Maclang 대표)
- 현재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협회는 3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API,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솔루션과 EBRD, ADB, IFC, USAID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우즈베키스탄의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며 더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커뮤니티와 연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임(우즈베키스탄핀테크 Otabek Nasirov 협회 부회장)

[핀테크지원센터] 외국인이 말하는 글로벌 핀테크

- 외국인 패널(럭키, 구잘, 프세프스와브, 크리스 존슨)의 시선으로 각 국가별 핀테크 서비스의 특징과 현황, 체험 사례 및 경험 등을 소개
 - 각 국가별 핀테크의 성장에 대해 패널의견을 공유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IT 업계가 더욱 성장했으며,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게 됨. 2021년 기준 인도 핀테크 기업은 약 6,000개 이상, 유니콘 기업 24개 존재하며, 이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금융정책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 2017년 우즈베크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어 온라인 बैं킹의 사용이 증가되었음. 폴란드 또한 전자 결제, SW 또는 재무관리 분야의 핀테크에 주력하고 있음
 - 패널이 생각하는 각국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는 미국의 SOFI(금융 소외자를 위한 온라인은행), 인도 PhonePe(공과금 납부 어플리케이션), 우즈베크 Humans(통신·쇼핑·금융 관련 종합 결제 어플리케이션), HUMO(체크카드결제시스템), 폴란드 BLIK(손쉬운 모바일 결제수단), PayEye(홍채 및 얼굴 인식을 통한 결제수단)가 있음
 -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정산하기, 센트비 해외송금 서비스, 토스 동시 계좌 송금 서비스 등 한국에서 경험해 본 핀테크 서비스 소개